



김회권 | 송실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신명기 역사서의 두 가지 중심 이데올로기는 예루살렘의 제의적 중심성 옹호와 다윗왕조의 정통성 옹호다(시 89; 132편; 참조, 신 7:12-26). 신명기 역사서가 그리는 이스라엘 통사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북 10지파의 다윗-솔로몬 왕실 이탈과 반역을 옹호하지만 예루살렘과 다윗왕조(특히 다윗)의 구속사적 중요성과 독특한 지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신명기 역사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갈등도 과거지사가 되었고 남유다의 다윗왕실도 법통이 끊어진지 거의 한 세대가 경과한 시점에 쓰여졌다²⁾(BC 562년 여호

1) 이 논문은 2012년 10월 19일 기독교공동학회 구약주제(통일과 화해) 논문으로 발표되었던 원고를 논찬자들의 논평과 발표청취학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수정한 글임을 밝힌다.

2) 한스 볼프 등에 의하면 신명기 역사서는 BC 550년 경 유다-베냐민 지파 영내에서 쓰여졌다

야긴의 석방이 신명기 역사서의 저작상한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역사서는 다윗의 신학적 자산가치를 한껏 드높이고 있다. 특히 다윗이 주도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의 통일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왕위등극과 치세를 기록한 역대기상 10-29 장과는 달리 북지파들과 남유다의 통일을 이끌어낸 다윗의 현실정치적 경륜을 자세하게 추적한다. 사울과 요나단의 길보아산 전사 후에 바로 다윗이 통일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었다고 보도하는 역대기서와는 달리, 사무엘서는 사울 전사 후 7년간 벌어진 헤브론의 유다와 마하나임의 사울 왕실간의 내전을 다윗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이스라엘 시대'를 열었다고 증언한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북지파의 추대를 받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현실정치적 과정을 보도한다.³⁾ 사무엘하 5장에서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다. 하나는 사울 왕에 의해 임명된 다윗의 군사적 영도력이며 다른 하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사무엘 신탁이다.⁴⁾ 이 중에 더 중요한 근거는 사무엘 신탁에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굳건한 신뢰다. “온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은 모세의 시내산 계시같은 공개적인 계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은밀하고 사사로운 신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로운 사무엘 신탁이 민중적으로 긍정되고 수납된 민중신탁이 된 후에 다윗

(Hans W. Wolff, "Das Kerygma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s," ZAW 73[1961]: 171-186[특히 172]).

- 3) 삼하 1-5장은 삼상 16장부터 삼하 5장까지 이르는 소위 “다윗의 왕위 등극사”(History of David's Rise)의 종결부다(빅터 해밀턴, 『역사서 개론』, 강성열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385). 이 단원은 신명기 역사서의 고유자료에 해당하므로 다윗을 이상적인 왕이요 중보자로 승격시키는 신명기 역사서의 의도를 반영하는 변증적 문서로 간주된다(P. K. McCarter, *II Samuel*[ABC; New York et al.: Doubleday, 1965], 64). 그래서 이 논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명기 역사가가 재구성한 다윗의 통일군주 이미지 연구’가 될 것이다.
- 4) 삼하 7:12-16의 나단신탁은 삼상 16장의 사무엘 신탁의 확장판이다. 신명기 역사서의 케뤼그마는 모세적 예언자를 통해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반드시 구현된다는 명제다(Wolff, 윗글, 172).

은 온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되었다.⁵⁾ 신명기 역사서는 역대기서와는 달리 민중적 추인과 추대가 신적 지명과 도유를 완성시키는 필수절차라고 본 것이다(왕상 12장의 여로보암 왕실 창건 과정도 유사). 사무엘상 16-17장에 기록된, 다윗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과정 자체가 신적 지명과 민중적인 추대를 통한 지명 기준 둘 다를 충족시킨다. 사무엘서는 민중위탁과 신탁 둘 다가 왕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신탁은 그 신탁수납자의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민중신탁으로 승화된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사무엘 신탁을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능동적으로 기투(企投)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무엘하 1-5장에 드러나는 통일군주 다윗의 현실정치학적 정치를 살펴봄으로써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위는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사된 신탁의 산물임을 넘어 다윗 자신이 정치력을 발휘해 획득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중심논지는 '하나님의 신적 경륜이 다윗의 주도면밀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 실현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유대와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일을 위해 북지파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감성정치를 시도한다. 감성정치는 북왕국의 두 지도자인 사울왕과 아브넬을 잃고 방황하던 북지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화해지향적 정치였다. 헬갓 핫수림(삼하 2:16) 참사에서 드러나듯이 남북지파들이 극도로 고조된 적개심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북지파를 제압해서 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소프트 파워에 의지하여 통일과 화해를 이루었다. 다윗은 군사적 정복으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조가를 통해 북지파들의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다윗은 두 차례의 조가 정치, 사울 왕가의 후손을 돌보는 인애의 보훈정치(요나단과의 헤세

5)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도유되었으나 실제 암몬 전쟁 승리를 통해 민중적 승인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드 수행), 군사적 통일을 지향하는 요압의 하드파워를 견제하는 민심호소 정치를 통해 통일과 화해를 성취해 간다.

2. 연구사 개관

다윗에 대한 최근 한 세대 동안의 연구들은 다윗 관련 본문들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삼상 16-삼하 5장은 역사적 신빙성이 약한 문서이며 대외적인 선전과 변증적 동기가 게재된 문서라는 것이다. 너무 선한 다윗은 역사적 실제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다. 빛나간 야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다윗, 왕위찬탈을 시도하지 않는 다윗, 사울의 비극적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은 날조된 다윗상이라는 것이다.⁶⁾ 진정한 실제 다윗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리는 이상화된 다윗상과 충돌한다는 것이다.⁷⁾ 이에 비하여 지미 라버츠의 최근 논문은 성경적 다윗초상의 역사적, 신학적 발전단계를 자세하게 추적함으로써 다윗 왕위등극과 제국구축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⁸⁾ 그는 다윗의 왕위등극을 정당화하는 사무엘하 저자의 용어와 논리를 고대근동의 왕위찬탈자들(히타이트의 하투실리스 3세, 앗수르의 에살하돈)의 선전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해명한다. 비교 영역은, 신탁이 민중신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외견상 왕위 찬탈자지만 실은 신의 점지에 의한 섭리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그리고 제국구축을 통해 자신의 왕위취득이 결국 신의 뜻이었음을

6) 해밀턴, 윗글, 386.

7) McCarter, 위의 책, 64-65; B. Halpern,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294; J. Vanderkam, "Davidic Complicity in the Deaths of Abner and Eshbaal," *JBL* 1980(94):521-539; F. Cryer,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Death of Abner: An Analysis of 1 Samuel 24:14-16 and the Redactional-Critical Implications," *VT* 1985(35):385-394.

8) J. J. M. Roberts, "Public Opinion, Royal Apogetic, and Imperial Ideology: A Political Analysis of the Portrait of David, 'A man after God's own heart,'" *Theology Today* 69/2 (2012년 7월): 116-132.

주장하는 수사 등이다. 라버츠는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왕위등극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사울의 무공이나 업적 일부를 요나단이나 다윗의 업적으로 전환시켰을 가능성을 포함해 약간의 창조적 개입여지를 인정하고 있으나⁹⁾, 다윗등극사 전체가 고대근동의 병행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잘 설명된다고 해서 어떤 신학적 가치나 역사적 신빙성이 없는 날조된 문서라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는 다만 다윗왕위등극사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역사적, 현실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된 다윗왕위등극 과정, 이상화된 영웅적 면모라기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다윗초상을 구축하는 데 치중한다. 본 논문은 지미 라버츠의 논지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인간적이고 현실정치적 타산력이 밝은 다윗의 초상을 보다 더 세밀하게 추적할 것이다.

그동안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의 통일과 화해정치를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학자들의 단행본 연구사나 진지한 논문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다만 이 주제를 주변적으로나마 논급한 논문들은 있으나¹⁰⁾ 사무엘서 강해서나 주석서 중에는 통일군주 다윗의 민족통일과 화해정치를 비교적 심도있게 논의한 저서는 유일하게 이승장의 저작만 있다.¹¹⁾ 주요 주석서들(박운선 주석, 이상근 주석, 노희원 대한기독교서회 주석 사무엘하, 카톨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간 사무엘상하 등)은 삼하 1-5장의 문학적 주제적 응집성에 거의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고 절 단위의 간략한 주해에 그치고 있다. 이 모든 주석들의 특징은 다윗의 역사로부터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거

9) Roberts, 위의 글, 122-123. 원진희도 삼상 15장 전승층 연구를 통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아말렉 족속 해멸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임을 강조하는 현 삼상 15장의 최종형태는 신명기 사가의 편견을 반영하는 후대편집자의 가필을 거쳤다고 본다(“사무엘상 15장의 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9[2008]: 47-65[특 62-63])

10) 김찬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통일의 의지,” 『기독교사상』 276(1981년 6월호):19-29; 방석중, “구약성서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통일사상,” 『신학과 세계』 19(1989): 238-263; 장영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구약성서적 조명,” 『교회와 신학』 27(1995년 8월): 8-33.

11) 이승장, 『다윗은 그 시대에』(서울: ESP, 2007), 11장 통일 이스라엘(삼하 1장-5장 3절), 229-254.

나 아니면 메시아적 예표성을 부각시키려는 데 치중할 뿐, 사무엘하 1-5장의 당대적 역사에서의 의미와 이 장들을 관류하고 있는 문학적-신학적 서사의 전진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어떤 학자들은 역대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다윗의 이스라엘 왕위등극 과정을 아예 무시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창균은 다윗, 아브넬, 요압 등의 행동들을 전략적 의도를 가진 처신들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의 성취과정만을 보도록 권장한다. 그는 삼하 1-5장에 나오는 사울왕가의 몰락과 다윗가문의 흥기에서 인간행위 주체들의 활동들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키고, '파란곡절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원래계획(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은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만을 도출하는 데 만족한다.¹²⁾ 이런 경건한 읽기는 사무엘하 저자의 의도(여러 인간 행위자들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기법)를 단순화하는 축소읽기이다. 다윗의 왕위등극사를 하나님 절대주권적 섭리의 전개과정으로만 읽으려는 경건한 읽기는 신학적, 주석적 상상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역대기의 병행본문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스라엘 왕권획득과정을 사울왕권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기술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도면밀한 정치공학적 기획성을 보여준다. 역대상 10장은 사울 사후 전개된 북지파와 다윗 사이의 7년 내전을 아예 생략하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처리한다. 다윗의 헤브론 정착, 사울 왕가와 다윗간의 7년 내전, 아브넬과 이스보셋 죽음 등 삼하 1-4장 전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¹³⁾ 반면에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이스라엘 왕위등극을, 소년시절에 하나님께 왕으로 점지된 다윗이 장년이 되어서야, 즉 실로 파란만장한 연단과

12) 정창균, "통일왕국의 왕위를 향한 역사의 진행,"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하 우주석시리즈; 서울: 두란노, 2009], 143-156(144, 149, 155).

13) 이종록, "같은 역사, 다른 이야기,"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99-124(특히 114).

위기를 거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 민중에게 점차적이고, 합리적으로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민중지지를 왕권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예언자적 왕정이해가 반영된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초월적 점지와 임명이 효력을 가지려면 민중신탁적 승인이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다윗은 민중의 지지와 추대를 받았기에 어디까지나 입헌군주적 제한 왕권을 가진 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이런 왕권 이해를 전제하여야만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 및 북지파의 저항, 그리고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의 지지가 납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연구사 개관이 보여주는 공백을 의식하며 사무엘하 1-5장의 다윗의 왕위등극과정의 민중적 승인과정과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주도면밀한 민족화해 및 통일정치를 탐색할 것이다. 일찍이 폰라드가 잘 지적했듯이¹⁴⁾ 이스라엘의 영속적 정통왕조 탄생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조탄생에 결부된 신화, 즉 하늘로부터 직수입된 왕조탄생 설화(ANET, p. 265)가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게도 당신의 다윗왕 점지가 술한 세월과 정치적 복합과정을 거쳐 민중에게 수납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 역사화되게 하신다. 여기에서 예언자적 왕정관이 엿보인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점지된 왕일지라도 아래로부터의 민중신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의 왕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예언자적 민중사관이다.

3. 온 이스라엘의 통일과 화해를 위한 다윗의 현실정치가적 경륜

1)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는 다윗(삼하 1:1-16)
1장은 마치 삼상 18-31장에서 전개된 ‘사울의 집요한 다윗 박해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다윗의 절제된 인품을 보여준다. 블레

14)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trans. D. M. G. Stalker; San Francisco: Harper, 1962), 308.

셋과의 전면전 끝에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 및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했다. 남방 아말렉 원정으로부터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다윗은, 사울 진영에서 탈주한 한 청년을 통해(2-3절)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및 그의 아들들의 전사소식을 전해 들었다(4-5절). 다윗은 그 전령 청년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상황을 알게 된 경위를 캐묻자(5절), 청년은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다가 사울의 최후 장면을 목도했다고 말했다(6절). 중상을 입은 사울이 자신의 고통을 끝내려고 죽여달라고 간청해서 자신이 할 수 없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 “주 다윗”에게로 가져왔다고 실토했다(7-10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비참한 최후 장면을 전해 듣자마자 모두 옷을 찢고(11절) 사울 왕과 요나단과 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 저녁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12절). 다윗은 사울의 전사소식을 알린(사실상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자 아말렉 청년을 전격 처형함으로써 온 천하에 자신이 사울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 성화 작업에 버금가는 조가를 공포하여 유폐시킨다(14-15절). 다윗 자신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두 차례나 가졌으나(삼상 24:10; 26:23) 그 때마다 “야웨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야웨의 뜻에 반역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려주었다. 이런 다윗의 입장 천명은 사무엘 선지자 진영, 이스라엘의 원로보수 진영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을 법한 도량 과시였다. 다윗이 야웨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인물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이 단락은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도량과 의리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야웨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계승한 왕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이 과도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弔歌)를 지어 목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처 입은 민심을 수습한다. 다윗의 사울-요나단 조가는 단지 애도 감정의 표현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고도로 주도

면밀한 현실정치적 책략이었다. 이런 다윗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현실정치적 책략과 감각이 탁월한 인물로 평가된다.¹⁵⁾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예상을 뒤엎는 요란한 조가정치는 다윗의 최근 몇 년간의 치명적 약점(이스라엘의 숙적이자 사울의 숙적인 블레셋의 아گی스 봉신 경력)을 세탁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¹⁶⁾

2) 다윗의 조가(弔歌)정치(1:17-27)

다윗은 지도자를 잃고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먼저 유다 지파에게 가르친다(17-18절). “활 노래”(lament of bow)라고 불리는 그 조가는 사무엘서 저작 당시에 현존했던 <야살의 책>(the book of yashar)에 기록되어 있었다.¹⁷⁾ 활 노래의 내용은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 사실을 블레셋 적진에 알리지 말 것을 말하는 부분과 두 용사의 죽음을 방치한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 두 용사의 장렬한 전사와 사울 왕의 생전 치적 찬양, 그리고 요나단과 자신의 계약적 사랑이다.

19절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왕과 왕세자는 한 나라 국력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암몬 족속에 대한 정벌을 필두로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함으로써 느슨해져가던 12지파 체제를 다시금 정비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전쟁영웅이었다(삼상 13-15장, 특히 14:47-52). 왕세자 요나단은 참으로 충직하고 아름다운 장수였다(삼상 14장). 19절 후반절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찌하여”를 의미하는 에크(ek)라는 영탄사로 시작된다. 직역하면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려

15) ‘너무 착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무엘하 1-4장이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는 일부 비평적 학자들의 견해는 지나치다(각주 7에 언급된 학자들). 다윗은 착하기보다는 현실정치적 인 감각이 특출한 야심가로 그려진다.

16) McCarter, 위글, 77.

17) 이것은 전쟁무용담이나 믿음의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었을 것이다(수 10:13; 참조, 왕상 8:12-13).

졌는가!”이다(에크 노펠루 기뵈림). 이 영탄사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어투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도의 의미다. 사무엘상 24-31장까지의 내용을 아는 독자라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예상을 뒤엎는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여기서 다윗의 도량이 얼마나 크고 자신을 추적하던 주군이 죽기만을 바랐던 반역자가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충심으로 애도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수 년 동안 적국 블레셋 아기스 왕의 봉신으로 지냈던 자신의 이력을 고려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더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20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진영에 알리지 말 것을 말한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며 아스글론은 블레셋 다섯 도시 연맹의 중심이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아렐림)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했다(20절; 비교, 삼상 18:7).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며 대적했다(삼상 17:26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하펠리쉬티 헤아렐 하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과 민족의식에 호소해서 남유다와 북지파들의 통일을 추구한다. 다윗의 활노래는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감정 토로를 넘어 두 용사를 방치한(?) 길보아 산들이 이슬과 비를 받지 못해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땅이 되라고 저주한다(21절).

22절은 두 용사의 투지를 찬양한다. 죽은 자의 피를 보고, 용사들의 찢긴 몸에서 흘러내리는 기름기를 보고도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고, 사울의 칼은 백전전승을 거둘 정도로 큰 전공을 세웠다(삼상 14:47-52). 다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찬양한다. 그들은 생전에도 서로를 사랑하였으나 죽을 때에도 서로 굳게 결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23절; 삼상

14:1-23은 요나단 무공 증언).¹⁸⁾

마지막으로 다윗은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사울의 공적을 담은 이 조가를 부르도록 요청한다. 사울이 단지 전쟁영웅임을 넘어 이스라엘의 의류 생활 등 문화 품격을 높였다는 것이다(24절).¹⁹⁾ 25절은 19절 후반절을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26절은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부각시킨다. 다윗은 “내 형 요나단이여”라고 부르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를 회고한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들의 우정은 정치적 동맹으로 확장된 사랑이었다(삼상 18:1-3; 20:8, 14-17, 23). 27절은 다시 두 용사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정예 무기’였던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처럼 다윗의 조가는 단지 개인적인 애도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절망감을 완화시키는 정치행위였다.²⁰⁾

2-4장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을 다룬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이스보셋 세력과 남유다의 두령이 된 다윗 세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된 정치공학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 이른다.

18) 사무엘상 14:47-48은 사울의 왕적 옹맹과 군사적 업적을 보도한다. 사울 왕은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지역의 소바 왕들과 블레셋 족속을 쳤다. 특히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 족속의 항구적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했다. 하지만 재위 기간 내내 블레셋과의 큰 싸움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옹맹한 자를 보는 즉시 자기 휘하의 특별정예부대로 불러모았다(삼상 14:52).

19) 삼상 16-삼하 5장의 ‘다윗등극사’의 중심은 사무엘 신탁을 통한 사울 폐위의 정당성 옹호에 바쳐졌으나(A. A. Anderson, *2 Samuel*[WBC; Waco, TX: Word Books, 1986], p. xxxii), ‘다윗등극사’의 후반부는 사울의 공적과 업적을 찬양하는 데에 치중한다. 엄밀하게 보면 이 사울 찬양이 다윗의 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에 추동된 찬양이라기보다는 현실정치적 고려가 깊이 내포된 찬양으로 보인다. 브루거만과 장일선 등은 이 조가에 다윗의 권력 지향적 모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읽기다(장일선, 『다윗 왕가의 역사이야기: 신명기 역사서 연구』[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7], 510).

20)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조가가 갖는 사적 차원(애도시)과 공적 정치적 수사적 웅변 차원 둘 다를 자세하게 분석한 글을 보려면, Tod Linafelt, “Private Poetry and Public Eloquence in 2 Samuel 1:17-27: Hearing and Overhearing David’s Lament for Jonathan and Saul,” *Journal of Religion* 88/4(2008): 497-526을 보라.

3) 다윗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치와 적대자들을 감복시키는 도량 (삼하 2:1-7)

오랜 망명생활을 끝낸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유다의 헤브론에 정착한다(1절). 하나님께서는 남방 향촌에 불과한 헤브론을 다윗의 본거지로 지정해 주신다. 자신의 권력의지를 감추고 어둔 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였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권력 중심부로 급격하게 진입하는 것은 왕과 왕세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당시 북지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점지하신 사무엘 신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후에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도망치던 다윗을 향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시므이의 저주(삼하 16:7-8,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세바의 선동적인 말(삼하 20:1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 할 분의와 업이 없다’)을 보면, 동시대의 일반백성들의 눈에는 다윗과 사울의 갈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용하는 현상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권력투쟁으로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정치적인 지혜와 경륜을 보여 주어야만 했다.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2절). 아울러 다윗은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도 헤브론 지역의 각 성읍에 정착시켰다(3절). 그는 이미 시글락 망명시절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장래를 도모해 오고 있었다. 그 전리품들은 다윗 자신의 지도력과 군사력의 과시였으며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시글락이 다윗의 망명정부였던 셈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다(4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은밀하게 기름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공공연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삼상 31:11-13).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족속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 사울 왕에 의해 구원받고 난 뒤부터 사울 왕권의 지지세력이 되었다. 다윗은 또 다시 예상을 뒤엎고 사울의 장례를 거행해 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었다(5-7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 충성을 바쳤다는 이유로 다윗 자신의 치세기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오히려 야웨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다윗과 비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안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한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주군인 사울 왕이 죽었고 자신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덧붙여진 첨언이 오히려 핵심메시지였다. 다윗은 현실정치적 세기(細技)에도 능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초기 정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지도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급기야 내전이 벌어진다.

4) 헬갓 핫수림의 동족상잔으로 균열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삼하 2:8-32)

8-32절은 이스보셋²¹⁾ 치하의 이스라엘과 다윗 치하의 유다 사이에 벌어진 내전 상황과, 그 갈등 상황에 편승해 득세하는 군벌들을 제압하여 화평을 도모하는 다윗의 분투를 부각시킨다.²²⁾ 북의 이스보셋과 남의 다윗 둘다 군부의 정치적 헤게모니(‘대결’)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21)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이스바알(man of Baal)(대상 8:33; 9:39)이었는데 아마도 다윗 궁중의 역사가에 의하여 ‘수치의 사람’을 의미하는 이스보셋으로 개명된 것처럼 보인다.

22) 이 내전 상황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대한 다윗의 공세적 접근(‘유다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 너희들도 잘 알아라’는 식의 메시지)을 자신들에 대한 도발이나 공세로 간주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사르-차바)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8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다(9절). 아브넬이 왕이 될 왕자를 “데리고 갔다(라카흐)”라는 표현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브넬이 왜 제사장이 상주하던 성소도시였던 기브아 대신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했을까? 아마도 그곳에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의 총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브넬은 선군정치를 구사한 것이다. 9절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체제를 옹호해 준 지파들의 면면이 소개된다.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아술과 중부 가나안의 곡창지대를 대표하는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중심지지 세력이었다. 이스라엘의 주요 곡창지대가 다 이스보셋의 영토였다. 9절 후반절에서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십 세에 왕위에 올라 레갑과 바아나에게 암살당하기 전까지 이스보셋은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삼하 4:5-7). 이러한 사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두령으로 활동했다. 다윗은 결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아마도 이스보셋 치하의 북지파 세력과 전면전을 하기에는 세력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으나 그는 한번도 북지파와의 전쟁을 스스로 기획하거나 촉발시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고 있었다.

남유다-북이스라엘 대치상황은 아브넬과 요압 주도로 일어난 전쟁으로 영구분단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기로 악화되었다. 먼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나아가 진을 쳤고(12절),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과 맞섰다. 남진하는 아브넬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요압 군대가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대항진을 쳤다(13절).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대표자들끼리 먼저 장난결투를 벌이자고 제의하자 요압이 동의한다(14절). 이 절에서 “겨루다”로 번

역된 히브리어 사하크(saḥaq)(BDB, p. 965-966)는 유희적인 대결을 의미한다.²³⁾ 그래서 개역한글판에는 14절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번역되어 있다. 왜냐하면 “장난치다”라는 표현이 아브넬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브넬은 이 대표용사들의 유희적 결투를 통해 전면전을 피해 볼 마음을 피력할 수도 있다. 즉 세력과시를 통해 요압 진영의 기세를 미리 꺾어놓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전면전을 위한 전의를 예열시키는 유희적 대결을 제안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비록 장난기어린 대표자간의 결투이긴 했지만 대결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아브넬(삼상 10:14-16; 14:50)이었다. 아브넬의 제안에 따라 각 진영의 대표자로 뽑힌 12지파를 대표하는 듯한²⁴⁾ 12명의 청년 전사들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일제히 동시에 쓰러뜨렸다(15절). 후대 사람들은 24명의 청년 전사들이 쓰러진 그곳을 헬갓 핫수림(heḷqath ḥaṣurīm), 즉 “날카로운 칼의 밭(the fields of the blades)”이라고 불렀다. 동족상잔의 피를 마신 밭이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의 밭, 젊은 용사들의 피를 흥건히 받아 마신 그 밭들은 사무엘서 저자 당대까지 동족상잔의 역사를 애처롭게 증언하는 증거로 기브온에 남아있었다. 사무엘서는 그 날카로운 칼의 밭들을 언급함으로써 동족상잔의 상흔을 회상하며 하나님 백성들의 화해와 일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한다. 하지만 정예 청년전사들이 서로의 배를 찌르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각 진영의 나머지 군사들도 적의에 불타올라 양 세력 사이에는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23)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는 행동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한다고 했을 때 그 때 뛰노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동사다(삼상 16:25, 27; 삼상 18:7 슝 8:5). 개역개정판은 이 동사를 “거루다”라고 번역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24) 장일선, 위의 책, 515.

서 패주하면서 전쟁은 일단락되었다(17절).

그런데 이 전쟁은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개인적 원한을 남겼다. 패주하는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 장군이 전사했다(18-22절). 아브넬은 앞으로 다윗과 요압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인지 아사헬을 어찌하든지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아사헬의 추격전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아브넬을 추격하던 다윗의 신복들은 아사헬의 시신 앞에서 잠시 멈춰 선 후에(23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끝까지 쫓았다. 아브넬을 추격하기 위하여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기아(Giah) 맞은쪽 암마(Ammah)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다(24절). 거의 낮시간 내내 아브넬을 추격했다는 뜻이다. 또 한편 요압 부대의 추격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서서(25절) 추격을 멈춘 요압 진영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양측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한다(26절).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기브온 전투가 전면전으로 전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한 것이다. 아브넬은 전쟁의 주체가 마치 칼인 것처럼 말한다. 칼이 사람을 상한다는 말은 맹목적인 호전성과 적개심으로 작은 분규를 전면전으로 몰아가지 말자는 의미였다. 대표용사들의 결투로 촉발된 전쟁이 단순한 대의명분을 넘어 야만적인 칼의 광란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는 만일 여기서 추격전을 그치지 않는다면 피차에게 “참혹한 일,” 즉 전면적 내전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요압이 그의 군사들에게 아브넬 군대 추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의 시작도 아브넬이 하고 휴전제의를 아브넬이 주도한 것이다. 요압은 아브넬의 합리적인 휴전제의를 즉각 받아들여(27절) 요압 진영의 아브넬 추격은 중단되었다(28-29절). 전사자 수의 비율로 보자면 360대 19로 요압 군대가 크게 이긴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었으나 전사

자의 질로 보면 요압의 승리로 볼 수 없다(30-31절). 요압 진영은 용맹한 장수인 아사헬을 잃었기 때문이다. 요압 군대와 아브넬 군대는 밤새도록 걸어 각각의 사령부로 복귀했다. 두 진영 다 사령부 복귀에 걸린 시간이 비슷한 것을 보면 전쟁은 양진영의 정중앙 근처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북군벌 아브넬을 설복시키고 남군벌 요압을 견제하는 다윗(삼하 3:1-30)

남북지파들의 군사령관들이 주도하던 적대적 분단체제가 다윗 가문의 우세 속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분단 체제 초기 2년 여 동안의 내전시기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 가문이 강성해져 갔다(1절). 2-5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놓는 삽입단락처럼 보이는 다윗의 아들들의 계보다(대상 3:1-4). 학자들은 이 계보가 사무엘하의 문단을 나누는 표지라고 본다.²⁵⁾ 사무엘하 5장 13-1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태생 아들딸들과 짝을 이루는 단락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독자들에게는 이 다윗의 아들들 목록은 이야기의 흐름을 약간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의미있게 읽힌다.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 가문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무엘서 저자는 2-5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등장 에 상응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윗 가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가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헤브론을 근거지로 유다의 두령 생활하는 다윗은 여섯 명의 아내로부터 여섯 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독자들은 이 아내들의 목록에서 다윗이 상당히 정략적으로 결혼했음과 동시에 아내들을 나름대로 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출신 지역이 다른 아내들로부터 각각 한 명씩의 왕자

25)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325.

를 나눔으로써 아내들을 다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독자들이 이 아들과 아내들의 면면을 보고 나면 아내가 많고 아들도 많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 왕가에서 다른 어머니들을 두고 태어난 이복 형제 왕자들의 공존은 잠재적인 권력 투쟁의 전조를 의미할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아내들과 많은 왕자들은 왕실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참조, 왕하 1장).²⁶⁾ 사무엘서 저자는 조금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취하였다는 말(삼하 5:13)을 덧붙인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아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복형제들로 가득 찬 그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후계 구도가 간단치 않음을 미리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5절이 다윗의 아들들의 계보임과 동시에 여섯 아내들의 계보인데 다윗에게 미갈이 없다는 것, 따라서 미갈은 아들도 낳지 못했다는 것은 사울을 뒤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려는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야 왜 다윗의 아내들의 계보가 이 자리에 나오는지 분명해 진다. 이 단락은 6-21절 단락의 중심화제인 미갈을 되찾으려는 다윗의 노력을 동정적으로 혹은 현실정치적인 타산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준비단락인 셈이다.²⁷⁾ 이 2-5절 단락은 첫 아내 미갈을 되찾으려는 다윗의 현실정치적인 움직임을 주목한 것이다. 이 아내들의 나열은 왜 다윗이 잠시 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26) 신명기 17:14-20에 나오는 왕규정에 따르면 다윗의 많은 처첩 소유는 신명기 율법 위반행위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두 차례에 걸쳐 다윗의 처첩 소유를 다소 불길한 시선으로 주목한다.

27) 사무엘서 저자는 미갈을 되찾으려는 다윗의 노력을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의 왕위등극을 위한 정통성 있는 명분 확보에 치밀한 준비를 다하는 다윗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발디엘로부터 미갈을 빼앗아오는 것을 정혼자와의 결혼을 금지한 신명기(24:1-4)의 위반으로 보려는 벤 바락의 입장은 도덕주의적 접근으로 보인다(A. Ben-Barak, "The Legal Background to the Restoration of Michal to David," *VTS* 30,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79], 15-29). 오히려 다윗의 경우 아내를 빼앗긴 희생자의 자리에서 아내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는지를 밝혀준다. 다윗은 미갈을 통해 사울 왕가와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다윗은 단지 내전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의 사위라는 신분을 토대로 사울 왕의 후계자로 왕위에 등극하기를 원한 것이다.

6-11절은 아브넬이 어떻게 해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윗에게 양도하려고 결심하게 되었는가를 보도한다. 사울의 첩이자 아야의 딸 리스바까지 아내로 취한(6-7절) 아브넬의 전횡과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힐책하자 아브넬이 반발했다. 전임 왕의 후궁을 취하는 행위는 단지 애정행각이 아니라 왕위계승 욕심의 공적 과시였다(삼하 16:21-22; 비교, 왕상 2:17).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제치고 수양대군처럼 왕이 되려는 야심을 내비친 셈이다.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아주 미묘한 정치적 복선을 담은 말로 반발한다(9절). “아워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대로”라는 말이다(삼상 13:14; 15:23, 26-28; 16:1,12; 참조, 삼상 24:10 사울의 공인; 삼상 28:17). 그 맹세는 10절에 소개된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용적으로는 사무엘 신탁의 변형본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무엘 신탁은 사무엘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알 정도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한 사무엘신탁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삼상 25:30 아비가일도 사무엘신탁 숙지). 아브넬은 자기가 만일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돌연한 협박 앞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11절).

이런 와중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왕국 양도협상을 벌이기

시작한다(12절). 어디까지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주장을 전면
 에 내세운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
 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의를
 받고 응락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첨부했다. “...나를 보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서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복지파들 보기에 보다 더 정당한 왕위등극 명분을
 축적하고자 했다. 미갈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의 사위이
 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누가보아도 자연스럽고 정당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왕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왕위를 얻기 위하여 온갖 현실정치적 책략을 구사한 현실정치가이
 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달라’ 고 요구한다. 여기서 ‘내 처’라는 말이 강조되
 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갈은 자신이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획득한 상급으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이다(14절; 삼상 18:27). 이
 스보셋과 아브넬은 할 수 없이 현재 남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다
 윗에게 돌려보냈다(16절).

한편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다윗의 이스라엘 왕 옹립
 문제를 꺼냈다(17절).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17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
 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18절).
 17-18절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으로 세우는 데 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 민
 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보고 다윗의 이스라엘 왕위등극에 관
 한 하나님의 예정을 더욱 확신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이
 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확히

알고 있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는 데(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한다는 말은 설득력 있게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한 아브넬은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가 받아들인 이스라엘 왕위 양위(讓位) 방안을 갖고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달려가(19절), 다윗의 환대를 받았다(20절). 다윗의 환대에 고무된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위 양위 문제를 자신이 주도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다윗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아브넬은 벌써부터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기회주의적 처세술을 거리낌없이 보여준다. 다윗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무리들을 설득하여 다윗 왕과 언약을 맺게 하겠다고 약속한다(21절). 크게 만족한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위 양위과정에서 주도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아브넬을 경계하는 다윗가신들과 요압에 의해 아브넬은 암살된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낸 아브넬을 죽여버렸다(26-28절). 자신의 아우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요압의 주군인 다윗이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은 요압의 마음을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했다. 요압은 사적 보복감정과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아브넬의 다윗방문과 협상을 파악했다(22-23절).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의 통일협상을 부정적으로 규정한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25절). 왕의 군사적 정치적 활동을 정탐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말은 군사적 영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삼상 29:6).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위해 출정하고(*môšā' ākā*, 적을 맞으러 나가다를 의미하는 *māšā'* 동사의 명사형) 전쟁으로부터 돌아오는 행위(“[돌아]오다”를 의미하는 *bā' ā* 동사의 명사형)를 지칭한다. 아브넬의 다윗 방문은 겉으로는 왕위 양위 문제를 위한 것이지만 실은 다윗의 군사적 지도력, 그것의 수행방식, 군대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윗과 아브넬의 이스라엘 왕위 양위 협상을 좌초시키려고 한다.

사무엘서 저자는 26절에서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요압의 암살음모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남북 지파들의 화해무드가 다시 오리 무중으로 빠져버린 것은 순전히 요압의 대결정치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입을 통해 요압의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28절). 다윗은 요압에게 아주 심각한 저주를 퍼붓는다. 아브넬의 억울하게 흘려진 피의 죄값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가문과 후손에게까지 다윗의 저주가 연장된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29절; 무죄한 피흘림에 대한 징벌 규정 참조[신 19: 10]). 자기 누이의 아들이요 즉 조카이자 필생의 충복인 요압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해 가문몰락을 빈 것이다.²⁸⁾

6) 다윗의 두 번째 남북화해적 조가정치(3:31-39)

31-39절은 다시 다윗의 조가(弔歌)정치를 보여준다.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결백하다는 것을 공포하고 그의 죽음이 국가적 슬픔임을 알리는 조가를 지어 이스라엘에 널리 알린다.²⁹⁾ 다윗은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말한다. 요압을 장례행렬 앞에 세움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을 우발적인 죽음으로 보이게

28) 30절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 간략한 첨기(添記)가 다윗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요압 가문에 대한 저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인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는 살생부에 기어코 요압의 이름을 포함시키고야 만다(왕상 2:5-6; 2:28-35).

29) K. W. Whitelam은 아브넬 장례와 관련된 다윗의 행동은 친다윗 궁중 선전책의 일환으로 날조된 이미지라고 평가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The Defence of David,” *JOT* 29[1984]: 61-87).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요압도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이 무르익어가는 남북 지파들의 화해와 통일에 장애물이 안 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며 극한 슬픔을 표현한다(31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일찍이 사울 왕 초기에 좌(左)다윗, 우(右)아브넬로 불릴 정도로 아브넬과 다윗 둘은 동역자였다(삼상 20:25). 설령 이렇게까지 과장스럽게 지어보인 다윗의 울음이 가장 순전한 의미의 진심은 아니었더라도 여전히 그것의 정치적 가치는 중대하다. 다윗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법을 터득한 현실정치가였던 것이다. 그는 적시에 슬픈 애가를 부르고, 오염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어 대중들을 무장해제시킨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노래한 그의 애가가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그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오늘날까지 사무엘서에 남아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 볼 때, 그것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아브넬을 위하여 다윗 왕이 지은 애가는 짧지만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애통함과 공분을 자아내는 비창(悲唱)이다(33-34절). 아브넬이 불의한 자처럼 불의한 자들, 의리 없는 배신자들 앞에서 무참하게 죽었다는 것이다. 결박되거나 발이 차꼬에 채이지 않은 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당하여 포로로 잡힌 채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장한 배신자들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 죽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의한 자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배신의 자식들”(bēnê ‘āwēlā)인데 아마도 요압 일당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왕이 이 조가를 부르며 통곡하자 온 백성이 다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³⁰⁾ 왕과 백성은 하나

30) 기독교학회에서 본 논문의 논찬을 맡은 차준희 박사는 R. G. Bownman의 논문을 인용하며 (“Fortune of King David/ The Fate of Queen Michal: A Literary Critical Analysis of 2 Samuel 1-8,” in D. J. A. Cline eds., *Telling Queen Michal's Story: An Experiment in Comparative Interpretation*,” JSTOT 119(Sheffield: JSTOT Press, 1991), 109) 이 아브넬-다윗밀약 무산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정치적 밀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사무엘서

가 된 것이다. 다윗은 자칫 남북 지파들 간에 다시 갈등과 적의를 심화시킬 수 있던 위기의 순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북지파들의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성공한다.

석양이 지기까지 식음을 전폐하던 다윗에게 못 백성이 나아와 음식을 권하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맹세하여 또 한번 못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35절). 자신의 슬픔의 진정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금식한 것이다. 이런 다윗의 진정성 넘치는 애도를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기 시작했다(36절). 역설적으로 아브넬의 장례식이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에 있는 보좌 위에 등극하는 공적 계기가 되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조가정치와 장례식 정치의 위력을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진심어린 슬픔과 금식을 보고서야, 즉 금식을 선언하고 슬픔을 과시한 그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벨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는 점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윗의 왕위등극을 위한 행진을 준비하기에 잘 닦여져 있었다. 38-39절에서 왕은 자신의 가신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의 군권에 휘둘리는 자신의 미약한 처지를 토로함으로써 요압과 아비새의 군사적 위세를 견제하기 시작한다. 다윗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얻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야전군사령관들의 에너지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과 화해는 약 5년간이나 지체되었다. 북지파들과 남유다 사이에 감돌던 평화 기운은 잦아들었다. 이때 이스라엘의 궁정에 지극히 우발적인 정변이 일어나 남북지파간의 통일

저자의 의도라고 보는데, 이것은 후대의 도덕주의적 투사가 반영된 일기라고 본다. 사무엘서 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왕권이 사람들의 승인과 동의를 거친 후에 다윗에게 실제로 하사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능동적인 기획 외에 또 다른 우발적 요인들에 의해 진행되기도 한다.³¹⁾ 다윗이 기획하지 않은 정변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와해되어 버렸다.

7) 살해된 이스보셋(삼하 4:1-12)

아브넬이 살해되어 유다에서 그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그것에 대해 소문으로만 알았다는 것은 그가 분단 역사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없었음을 보여준다.³²⁾ 결국 그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두 사람의 군지휘관이자 베냐민 족속 브에룻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바야나와 레갑에게 살해당한다(7절). 이 브에룻은 기브온 족속의 관할 아래 있는 성읍이었다(수 9:17). 3절은 삽입어구다. 사무엘서 저자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브에룻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이 사건으로 브에룻 사람들이 깃다임(참조, 느 11:33)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한다. 이스보셋 왕을 죽인 두 군지휘관의 반역사건으로 후손들이 자신들의 원래 고향에서 쫓겨나 깃다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외지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³³⁾

사울의 왕세자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므비보셋³⁴⁾을 소개하는 4절은

31) 자크 엘룰, 『하나님의 정치와 사람의 정치』, 김희권 역(서울: 두란노, 2006).

32) 3:32-37의 “백성, 온 무리, 온 이스라엘”은 아마도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된 군중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33) 2-3절에 대한 NRSV의 해석은 개혁개정과 다르다. NRSV는 3절을 부연설명하며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 수 9:17을 근거로 브에룻이 원래 기브온 족속의 성읍임을 밝힌 후, 브에룻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당시에 새롭게 정착한 거주민들이라고 본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기브온 족속 등 이방족속들을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추방할 때 브에룻의 원거주자들인 기브온 사람들이 일찍이 깃다임으로 도망쳐 사무엘서 저자가 살던 그 당시까지 깃다임에 살고 있었다고 본다. 사울의 은덕으로 기브온 족속의 땅을 새로 차지한 베냐민 지파인 브에룻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를 선사해 준 사울 왕을 배반한 것은 최악의 배신행위가 되는 셈이다. 어떻게 읽든 2-3절은 주군(主君)을 저버린 베냐민 지파 브에룻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논평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과 정반대의 예다.

34) 므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므림바일(대상 8:34; 9:40)이었을 텐데 이스보셋과 마찬가지로 다윗 궁중에서 사울 왕실 격하운동을 할 때 이 경멸적인 이름으로 개명되었을 것이다.

언뜻보면 이야기 흐름을 끊어놓는다. 서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섯 살의 므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므비보셋이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 두 명(바아나와 레갑)에게 호위당하는 상황을 보도하자마자 므비보셋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보셋이 살해당한다면 누가 그의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질 독자들을 염두에 둔 편집적 고려였을 것이다. 다시 사무엘서 저자는 경호대장 역할을 해야 할 두 명의 기회주의적인 군장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이스보셋 이야기로 되돌아온다.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5-6절).³⁵⁾ 7절 상반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는 5절의 반복인데 다분히 의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스보셋이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레갑과 바아나는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7절) 헤브론에 당도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말했다.³⁶⁾ 다윗의 이스라엘 통일 방략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이 두 암살자의 행동은 다윗의 이스라엘 왕위 등극을 찬탈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다. 만일 다윗이 이들을 환영하여 그들을 칭찬한다면 다윗은 찬탈자요 배반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저자는 다윗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배신자들이 생각하는 권모술수적이고 반역

35) 70인역에는 6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보라, 그 집 문을 지키던 여인이 밀을 까불고 있었다. 그녀가 졸려 하다가 잠에 떨어졌다.” 밀을 까부르던 여인을 전제하 여야만 밀을 가져가려는 것처럼 조용히 접근한 상황이 좀 더 자연스럽다.

36) 사울가문에 대한 적의어린 행동을 통해 다윗의 호의를 얻으려고 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윗에게 배척당하고(아말렉 청년, 바아나와 레갑), 사울가문에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은 칭찬받는다(길르앗 야베스 사람).

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기회주의적인 암살자에게 내린 다윗의 처분을 보면 금세 다윗의 됃됨이가 밝혀진다. 다윗은 상을 주기는커녕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를 처형해 버린다(참조, 삼하 1:14-17). 다윗의 이스보셋 암살사건을 악인이 의인을 살해한 사태로 규정한 것이다(10-11절).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義人)이라고 말하고 이스보셋의 암살자 두 군지휘관을 죽여버림으로써 이스보셋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자 한다. 다윗은 그 둘을 죽여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게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주었다(12절). 이런 이유 때문에 처형당한 배신자의 후손들과 친척들인 브에롯 사람들은 사무엘서가 쓰여지던 시대까지 깃다임(Gittaim)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외지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고향을 빼앗기고 외지인으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무엘하 1-4장 플롯은 북지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다윗의 분투와 동선을 따라 움직인다. 사울, 요나단,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다 죽임을 당해 제거되었으나 아무도 다윗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휘부의 죽음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지휘부 죽음에 완전히 결백할 뿐만 아니라 응분의 정의실현을 했음을 보여준다.³⁷⁾

죽은 사람	죽인 사람	다윗의 반응과 대처
사울/요나단	아말렉 청년	국가적 애도와 아말렉 청년처형(1:17) ³⁸⁾
아브넬	요압	슬픔과 금식, 요압의 공개적 단죄와 저주(3:31-35)
이스보셋	레갑과 바아나	복수와 처형, 후손 추방(4:11-12)

반면에 사울 왕가의 왕손인 므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는 다윗이 요나단에 헤세드를 베푼 것과 같음을 알려준다.

37) Walter Brueggemann, *1-2 Samuel*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233.

4.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통일군주 다윗(사무엘하 5:1-5)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비참한 죽음으로 지휘를 잃은 북지파들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아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한 골육임을 강조한다(1절; 삼상 19:13, 신 17:15 이스라엘 형제 출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과 북쪽 지파들이 언약적 연대안에서 결속되고 있음을 고백한다.³⁸⁾ 둘째, 다윗이 사울 왕 재위시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다는 점이다(삼상 17:17-54; 18:5; 23:1-5).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군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출입한 지도자는 ‘당신 다윗’이었음을 인정한다. 강조적 대명사 ‘아타’가 사용된다.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야웨께서도 다윗에게 대하여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³⁹⁾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⁴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했다는 것이다(2절).⁴¹⁾ 이러한 요청 자체가 야웨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과정임을 주지

38) ‘골육’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계약적 결속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Brueggemann, *1-2 Samuel*, 237).

39) 사무엘서는 자주 한 때 ‘목자’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기드(왕 후보자)로 점지하고 그에게 도우하게 하신다(삼상 16:11; 삼상 16:19; 삼상 17:15, 28, 34, 40). 스티븐 맥킨지(S. McKenzie)는 이 이미지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신탁을 민중들에게 쉽게 납득시키는 문학적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다윗이 실제로 목자라는 사실은 역사적 신빙성이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는 신약시리아의 제왕신탁(에살하돈 신탁) 등에 비추어 사무엘서의 목자 다윗 이미지를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문학적 은유로 본 것이다(Steven L. McKenzie, *King David: A Biograph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7-51). 그러나 고대근동 제왕신탁과의 비교를 통해 다윗의 목자경력을 손쉽게 날조된 정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사무엘서는 의도적인 선전문맥이 아닌 곳에서도 다윗의 목자경력을 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의 지형상 소년시절에 양떼를 친 경험이 있다고 말한 다윗의 증언(삼상 17:34-37)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아버가일-나발 사건에서 엿보이듯이 양털깎는 철과 그것의 축제적 요소에 대한 다윗의 친숙함 등은 그의 목자경력을 오히려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보게 만든다(비교, 삼하 7:8).

40) McCarter, 윗글, 113.

41) 사무엘 신탁이 파편적으로 인용되거나 입증되고 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

시킨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말은 내러티브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나 아마도 사무엘상 16장 1-13절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다윗의 이스라엘 왕위 등극은 인간주도적인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야웨의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인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다윗 왕에게 나아와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자 다윗은 수락한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웨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3절). 하나님의 마음 즉 천심이 민심과 통하여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7년간 계속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대결이 종식되고 통일이 이뤄진 것이다. 다윗은 삼십 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4-5절).⁴²⁾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 중 주목을 끄는 것은 다윗에 대한 호칭이 목자라는 점이다.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고 돌보는 왕적 책임자이지 전제군주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제군주 다윗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삼상 8:11-19) 목자 다윗, 즉 입헌군주 다윗을 세운 것이다.⁴³⁾ 3절의 언약체결이 바로 다윗의 왕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조건에 매여 있으며, 협상의 결과 주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야웨의 기름부음은 민중의 기름부음을 의미한 것이다.⁴⁴⁾

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가 구체적인 인간들의 대리행위를 통해 이뤄져가고 있다. 삼상 16장의 사무엘의 다윗 도유 사건이 다윗의 왕위등극을 승인하는 민중선택으로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암시한다(삼상 16:1, 13; 18:16 다윗이 출입하였다; 18:27-28 미갈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정; 18:30 블레셋 세력에 대하여 다윗이 거둔 전공 명성 대대; 사울의 다윗 왕위 인정 24:20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아비가일의 고백 삼상 25:30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시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42)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민중대표자들)에 의하여 추대된 왕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에 의해 다윗왕실의 이스라엘 통치도 무효화될 수도 말이다. 결국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통치권 위탁임과 동시에 민중의 통치권 위탁이기도 하다.

43) Brueggemann, *1-2 Samuel*, 239.

44) 성주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57-172(159-160). 성주진의 지적처럼 신명기 기준으로 볼 때 한 가지 약점은 다윗이 많은 처첩을 거느렸

이처럼 분열-적대-통일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를 능동적으로 이루려는 다윗의 투신에 의해 완성된다. 사무엘에게 위탁된 다윗의 이스라엘 왕위신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승인된 민중신탁이 되어(삼상 13:14; 16:1; 요나단의 사무엘 신탁 인정 23:17; 아비가일의 인정 25:26-31; 사울의 인정 24:20; 요나단) 다양한 인간들의 대리행위들이 엇물리고 맞물리면서 실현된 것이다.

5. 결론

마침내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망명과 수난의 시절은 끝난다. 사무엘상 16:1, 12에서 사울을 버린 야웨 하나님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점지된 이후 야웨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정치 한 복판으로 진출해서 왕의 사위요 군대장관이 된다. 사무엘상 16-사무엘하 5장은 사울 왕의 이웃(측근)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이 양도될 것이라는 사무엘신탁(삼상 13:14 *이쉬 킬리바보* 그 마음에 합한 사람; 15:28 *레아카 하툼 밍메카* 너보다 더 좋은 이웃; 삼상 28:17 네[사울] 이웃 다윗에게 넘겨진 왕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역대기의 다윗 치적 본문에서는 다 생략된 이 다윗 등극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사무엘신탁이 민중에게 충분히 유포되어 민중신탁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삼상 16:1, 12; 18:28 미갈의 인정; 19:18 다윗의 라마나웃 도피와 사무엘 후원 호소; 20:13 요나단 인정; 24:16, 20[26:15] ‘내 아들 다윗아’ 사울 인정; 25:30 아비가일 인정; 28:17 엔들의 무당집에 나타난 유령 사무엘 인정; 삼하 3:9 아브넬 인정; 삼하 5:2 이스라엘 장로 인정⁴⁵⁾. 이 단원은 이 사무엘 신탁이 실현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추적한

다는 점이다.

45) 삼하 5:2절의 하반절은 “봐요메르 야웨 러카 ‘야타 티르에 옛-암미 옛-이스라엘 뵤아타 티 흐에 러나기드 알-이스라엘’”이다. 직역하면 “야웨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울의 측근(이웃)인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화해시키고 통일하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한다. 다윗은 신명기 역사서의 민중-예언자적 역사관의 기준을 충족시켜 가면서 아래로부터 기름부음(전적 통치위탁)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된다. 이 사무엘서 전체에 걸쳐 다윗은 전제권력을 휘두르는 왕(멜렉)이 아니라 군사적 영도력을 갖고 블레셋의 전면적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제한적인 왕권을 구사하는 나기드(군장, 방백, 현왕에 의해 지명된 군통수권자, 혹은 왕)로 불리거나 간주된다.⁴⁶⁾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을 위해 구사한 현실정치적 책략과 경륜은 다섯 가지다. 첫째, 사울왕과 왕자들의 전사로 북지파들의 왕권을 휘두르던 아브넬이 죽자, 북지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주도면밀한 조가정치를 구사한다. 둘째,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자 사위로서 사울 왕통을 합법적으로 계승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복권시킨다. 셋째, 사울 왕손들에 대한 보훈 및 인애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이 사울왕가를 찬탈한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입각해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임을 드러낸다. 넷째,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도모하는 용인술을 구사한다. 다윗은 기회주의적이고 권력남용적이며 영악한 아브넬이 반평화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족화해세력 진영으로 끌어들이는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다시 적의로 갈라

스라엘을 목양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방백이 될 것이다.”

46) 알트는 “멜렉”(왕)이 유력백성들에 의해 붙여진 호칭임에 비해 “나기드”는 하나님께 “알려지고, 선포되고 지명된” 지도자를 의미하고 본다(Albrecht Alt,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6], 254). ‘나기드’라고 불린 왕은 사울(삼하 9:16; 10:1), 다윗(삼상 25:30; 삼하 5:2; 6:21; 7:8; 비교 삼상 13:14), 솔로몬(왕상 1:35), 아비야(대하 11:22), 예로보암(왕상 14:7), 바사(왕상 16:2), 그리고 히스기야(왕하 20:5)였다. 히스기야를 제외하면, ‘나기드’ 호칭은 미래 왕으로 지명된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현왕에 의해 보장되고, 하나님에 의해 합법적으로 세우진 지도자를 의미했다. 그런 점에서 제한된 왕권을 가진 왕이었다. 그러나 소형근은 주전 9세기 페니키아의 노라(Nora) 비문연구를 통해 주전 10-8세기의 히브리어 ‘나기드’는 단지 군사적 지도자 이상인 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했다 (“노라[Nora] 비문과 구약의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29[2008년 9월]: 145-162[특히 159]), 이 쟁점의 확정적 정리를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문헌학적, 어원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 뿐 한 남북지파들의 마음에 화해의 기운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는 아브넬을 위한 조가를 지어 유포시켰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던 조가(弔歌)정치를 또 다시 구사한 것이다. 그 조가들에는 온 이스라엘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대의에 대한 다윗의 필생에 걸친 충성심이 압축되어 있다(행전 13:36).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신의 왕위등극을 예고한 사무엘 신탁이 온 이스라엘 민중 속에 승인된 민중신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통일군주 다윗의 민족화해 정치와 통일정책은 당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신명기 역사가의 이데올로기적 다윗이미지 구축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에서는 다윗의 남북화해정치가 당대의 남북지파 민중들에게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명기 역사가는 자신이 그리는 다윗상 구축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란이나 세바의 반란, 시므이의 저주 등에서 보여지듯이 북지파의 핵심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반다윗 정서가 북지파들 사이에 존재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가의 통일군주 다윗이미지 선전이 화급한 쟁점이었을 것이다. 신명기 사가는 이런 역경 속에서 오히려 다윗의 남북화해 정치와 민족통합적 도량정치가 추동되었음직함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유일 분단적대국인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겨레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다윗형 정치가의 출현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유일 분단적대국인 우리 한반도 전체가 헬갓 핫수림인 셈이다.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적의로 갈라진 동족의 가슴에 난 상처를 싸맬 수 있는 화해의 노래를 부를 다윗형 정치가들이 나와야 헬갓 핫수림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 요압과 아브넬 같은 군부권력가들의 마음마저 감동시킬 수 있는 다윗형 화해추구형 통합추구형 대정치가가 이 땅에서 나와야 한다. 지난 분단 체제 긴 세월 동안 우리 겨레는 헬갓 핫수림의 역사, 아브넬과 요압형 전

사들이 서로의 배를 찌르면서 날카로운 칼발을 중흥하던 역사였다. 이 헬갓 핫수림의 역사가 요즘 다시 대세가 된 듯하다. 엄청난 국방예산을 늘리는 남한이나 핵무장강국의 비전에 모든 것을 거는 북한의 “무력” 과시는 평화의 길은 멀고 좁고 협착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헬갓 핫수림의 핏빛 한반도 들판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화해와 통일의 정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절이다.⁴⁷⁾

6. 참고문헌

-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김찬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통일의 의지,” 「기독교사상」 276(1981년 6월호):19-29.
-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하」(서울: 복있는 사람, 2009).
- 방석종, “구약성서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통일사상,” 「신학과 세계」 19(1989): 238-263.
- 성주진, “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하우주석시리즈; 서울: 두란노, 2009), 157-172.
- 소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의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29(2008년 9월): 145-162.
- 원진희, “사무엘상 15장의 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9(2008년 9월): 47-65.
- 자크 엘룰, 「하나님의 정치와 사람의 정치」, 김희권 역(서울: 두란노, 2006).

47)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하」(서울: 복있는 사람, 2009), 78-82.

이승장, 「다윗은 그 시대에」(서울: ESP, 2007), 11장 통일 이스라엘(삼하 1장-5장 3절).

이종록, “같은 역사, 다른 이야기,”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하우주석시리즈; 서울: 두란노, 2009), 99-124.

장영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구약성서적 조명,” 「교회와 신학」 27(1995년 8월): 8-33.

장일선, 「다윗 왕가의 역사이야기: 신명기 역사서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정창균, “통일왕국의 왕위를 향한 역사의 진행,”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하우주석 시리즈; 서울: 두란노, 2009), 143-156.

빅터 해밀턴, 「역사서 개론」, 강성열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Albrecht Alt,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6).

Anderson, A. A. *2 Samuel* (WBC; Waco, TX.: Word Books, 1986).

Ben-Barak, A. “The Legal Background to the Restoration of Michal to David,” *VTS 30,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79), 15-29.

Bownman, R. G. “Fortune of King David/ The Fate of Queen Michal: A Literary Critical Analysis of 2 Samuel 1-8,” in D. J. A. Cline eds., *Telling Queen Michal's Story: An Experiment in Comparative Interpretation*, JSOT 119(Sheffield: JSOT Press, 1991).

Brueggemann, Walter. *1-2 Samuel*(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Cryer, 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Death of Abner: An Analysis of 1 Samuel 24:14-16 and the Redactional-Critical

- Implications,” *VT* 1985(35):385-394.
- Halpern, B.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 Linafelt, Tod. “Private Poetry and Public Eloquence in 2 Samuel 1:17-27: Hearing and Overhearing David's Lament for Jonathan and Saul,” *Journal of Religion* 88/4(2008): 497-526.
- McCarter, P. K. *II Samuel* (ABC; New York et al.: Doubleday, 1965).
- Mckenzie, Steven L. *King David: A Biograph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von Rad,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D. M. G. Stalker; San Francisco: Harper, 1962).
- Roberts, J. J. M. “Public Opinion, Royal Apologetic, and Imperial Ideology: A Political Analysis of the Portrait of David, ‘A man after God's own heart,’” *Theology Today* 69/2 (July 2012): 116-132.
- Vanderkam, J. “Davidic Complicity in the Deaths of Abner and Eshbaal,” *JBL* 1980(94):521-539.
- Whitelam, K. W. “The Defence of David,” *JSOT* 29(1984): 61-87.
- Wolff, Hans W. “Das Kerygma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s,” *ZAW* 73(1961): 171-186.

검색어

다윗

다윗등극사

민중신탁

민족화해와 통일

사무엘하

다윗의 현실정치

King David's Politics of Reconciling Northern Israel with Southern Judah and His Political Strategy for National Unification

Hae Kwon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first to explore King David's Politics of Reconciling Northern Israel with Southern Judah and His Political Strategy for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close analysis of 2 Samuel 1-5, and then to argue that David's rise to power illustrates the Deuteronomistic viewpoint of monarchy. It consistently argues that David's enthronement over the entire people of Israel was made possible through David's realpolitical sagacity and faith commitment to the Samuel-mediated oracle saying, "Yahweh God of Israel will make you a shepherd over the entire people of Israel in place of Saul his predecessor". This was

www.kci.go.kr

obviously case with David's realpolitical performances which were designed to bring the broken and self-insecure heart of the northern tribes close to him and to reconcile Judah with Israel through several public show-ups of his heartfelt sympathy with the sorrow and pain of the northerners over the deaths of Saul, Jonathan, and Abner. 2 Samuel 1-5 demonstrates that the God-given oracle regarding the future reign of David over all Israel was substantiated and made real only through diverse human agents' approval of and commitment to the original Samuel oracle. This characterizes the Deuteronomistic kingship in contrast to other ancient near eastern royal mythologies, whose aim was to provide check and balance for a human king lest he/she fall into the trap of despotism and political autonomy. Thus comes the contract of the elders of Israel with David as a climax to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which means that David was enthroned as a constitutional monarchy and was bound to rule Israel only under the people of God's approval of and full assent to his kingship. The present essay concludes that David's unification of Israel with Judah was achieved only through the elders of Israel's request for David to be a king over all Israel on the condition that David will remain faithful to the equal and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two parties.

Keywords

David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Popular Oracl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2 Samuel

David's Realpolitics

- 투고일: 2013년 1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8일

www.kci.go.kr